

제1장 국내외 웰다잉 논의,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웰다잉 연구와 교육은 미국에서 4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 로버트 풀턴 교수가 미네소타 대학에서 죽음준비교육 과목을 1963년 개설했고 정신과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죽음과 임종' (Death and Dying)을 1969년 출간했다. 대학은 물론이고, 초등과 중등 학교에서 죽음준비교육을 보건교육의 일부로 가르치기도 하고 문학이나 사회 과목 수업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로버트 스티븐슨은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2년부터 웰다잉 교육을 시작했다.

삶의 질 못지않게 죽음의 질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은 10대 청소년들에게 호스피스 센터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죽음을 제대로 알아야 삶을 바르게 영위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다기(Dougy) 센터는 뇌종양으로 열세 살 때 죽은 어린 소년의 이름을 따서 1982년 설립된 '어린이를 위한 슬픔치유 교육과 카운슬링 센터.'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기 쉽인데다 쓰라린 체험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오히려 가혹한 왕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기 센터를 모태로 미국 전역에 어린이를 위한 슬픔치유 교육과 카운슬링 센터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국립 죽음준비교육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Death Educatoin), '죽음준비교육과 카운슬링 협회' (the Association for Death Education and Counselling), '미국 슬픔치유 카운슬링 아카데미' (the American Academy of Grief Counseling) 등을 통해 죽음준비교육과 슬픔치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몇 년 전 불치병 선고를 받았지만, 운 좋게도 치료 가능한 췌장암으로 밝혀져 다시 회사로 돌아온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최근 사람을 마감했다. 그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말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죽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열일곱 살 때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 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미국인들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시신 주위에서 농담을 자주 던지고 고인을 추모하면서 갖가지 유머를 쏟아내 장례식장 이곳저곳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트 부크월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망했습니다.”

2007년 1월18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올라온 칼럼니스트 그의 동영상 부고기사. 날카로운 풍자가 가득한 칼럼으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는 자신이 직접 미리 제작된 동영상 비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일본의 경우, 알폰스 데켄 교수가 1975년 동경 조치대학에 '죽음의 철학' 강좌를 개설했고, 82년 '생과 사를 생각하는 세미나' 83년에는 '생과 사를 생각하는 회'를 결성해 훗카이도에 서 오끼나와에 이르기까지 53개 지역모임에서 5천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 웰다잉 교육의 보급을 위해 '죽음준비교육 연구회'를 1999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죽음준비교육이 2004년부터 학교교육에 포함됐고, 교재개발을 위해 2006년 예산에 4백만 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또 일본존엄사협회는 일본 전역에서 30년 넘게 공개강연회와 토론회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임종방식을 미리 준비하는 '생전유서(리빙윌) 준비하기' 운동을 벌여 동참한 사람이 12만여 명을 넘어섰다. 고이즈미 전 총리, 오쿠다 전 경제단체연합회 회장도 회원이다. 일본변호사협회는 매년 4월15일을 '유언의 날'로 정하고 유언장 작성 공개 캠페인을 벌입니다. 전국에서 무료법률상담이나 강연회를 통해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상속에 관한 법률을 알려준다.

우리 사회의 경우, 죽음에 대한 타부와 거부감은 뿌리깊다.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존엄사 법제화를 논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죽음문화 성숙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도 죽음준비교육을 종교단체,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명동성당에서는 '죽음체험 하루 피정'을 매년 11월마다 진행하는 등 몇몇 교회와 사찰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각당복지재단, 또 광진구, 노원구, 성동구, 동작구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노인 대상으로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한림대 생사학연구소가 처음으로 1997년부터 철학과 전공과 교양으로 죽음준비교육을 하고 있다. 한림대 학생들은 자살예방과 죽음준비 교육을 교양 필수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실시중인 웰다잉 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입관체험이 마치 죽음준비교육의 전부라도 되는 듯이 죽음 주변에서 머뭇거리기만 할 뿐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입관체험은 상업적으로까지 이용되기도 하는 등 하나의 이벤트 혹은 퍼포먼스로 전락된 느낌이다.

죽음이 끝인지 아닌지,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인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핵심 내용을 가르치지 못한 채 웰다잉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사학 전문가의 부재가 결국 웰다잉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죽음준비교육도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만 실시되고 있을 뿐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죽음준비교육은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자살문제와 웰다잉 교육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다. 우리 사회는 자살 예방을 위한 해법은 찾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 자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으로 자살자는 양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로, 전통적으로 ‘자살대국’이라 알려진 일본을 훌쩍 넘어섰다. 청소년상담원이 2007년 청소년 45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명 중 59명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고, 100명 중 11명이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또 대한우울증·조울증학회가 2004년 12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조사 도구를 사용해 우울증 유병률을 조사했을 때 60%가 우울 증세를 가진 것으로 판정받았다. 노인의 경우 여의도 성모병원이 2004년 10월 백화점에서 조사했을 때 80%가 우울증으로 판정받았다. 죽음의 질이 좋지 않으니, 그 결과 자살률과 자살충동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미봉책에 불과한 위기개입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살예방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자살률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회의 자살률, 자살충동률, 우울증 유병률, 불행한 임종모습 등을 감안했을 때, 이제 '웰다잉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운동'을 통해 바람직한 죽음이해와 성숙한 임종방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1 WHO의 기준에 따라 죽음을 육체적, 사회적 관점(의학적, 법률적 죽음이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관점(생사학, 종교의 죽음이해)에서도 접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2 죽음준비교육을 학교와 사회 교육으로 실시. 특히 의과대학에 웰다잉 교육 과목 개설.

3 죽음과 자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중심으로 자살예방교육 실시.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 계층에 집중적으로 자살예방교육 실시 :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군부대 병사와 전투경찰

4 학교 교사, 군장교,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교육을 통해 웰다잉과 자살예방 전문가로 양성

5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6 존엄사 법제화 이전에,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과 절차를 분명히 제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엄격한 존엄사 가이드라인 확정.

7 생전유서와 사전의료 의향서 표준양식을 확정해 보급.

8 죽음준비와 유서쓰기의 생활화.

이제 우리는 죽음문화 성숙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죽음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결코 향상될 수 없다. 죽음은 몇 년, 혹은 몇 십 년 뒤에 자신에게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죽음의 질’ 생각합시다

대법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존엄사법 제정 이전에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사회 죽음의 질은 과연 어떠한지 묻고 싶다. 존엄사법제화를 논할 정도로 충분히 준비됐는지, 죽음문화 성숙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죽음의 질이 아주 나쁜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또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죽으면 다 끝나는가.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인가. 전국의 의과대학에 죽음을 가르치는 관련 교과목이 개설돼 있는가. 생사학을 연구하고 웰다잉(Well dying)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얼마나 되는가.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는 요즘, 병실과 장례식장 사이의 중간단계인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의사와 간호사는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임종환자를 보살핀다.

의료현장에서는 심폐사와 뇌사를 죽음으로 정의한다.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 죽으면 다 끝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심폐사와 뇌사는 의학적 죽음 판정의 기준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죽음의 정의가 될 수 없다.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WHO는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4가지 측면에서 건강을 말한다. 그렇다면 죽음도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바람직한데 우리 사회는 육체의 죽음,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다.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사회에서 존엄사를 서둘러 법제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죽음을 일상대화(死語)의 주제로 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죽음의 이해와 임종방식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엄사를 성급하게 법제화한다면, 현대판 고려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제부터 학교와 사회에서 웰다잉 교육을 실시해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성숙한 임종방식을 확산시키고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또 생전유언(리빙 윌)과 사전의료지시서 표준양식을 만들어 이에 동의하는 사람은 서류에 서명해 준비하는 등 죽음문화 성숙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을 시작했으면 한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2000년에 자연사법을 제정한 대만은 존엄사를 인정하기까지 7년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죽음이해와 임종방식의 성숙을 위한 개인적 준비와 사회제도 정비를 차분히, 또 꾸준히 진행하면서 존엄사 법제화를 모색하는 일이 순리다.